

IS “우리가 격추” 주장...러 “기체결합 가능성”

러 여객기 추락원인 미궁

꼬리부분 떨어진 곳서 발견

높은 고도서 동체와 분리된 듯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지난 31일(현지시간)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세력 과시를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원인은 기체 결합 등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공중에서 분해됐다는 러시아 당국 발표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고 원인은 치명적인 기체 결합, 미사일 격추 등 여러 가능성에 모두 열려 있다.

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에어버스 A321로, 18년 된 항공기지만 2001년 사고로 손상된 기록이 있다. 이 항공기는 2001년 카이로 공항 활주로에서 꼬리가 부딪히는 ‘테일 스트라이크’를 겪었다.

이번 사고로 이 여객기는 꼬리 부분이 나머지 동체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며 이는 공중에서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테일 스트라이크’ 이력은 앞서 일본에서 비슷한 이력을 가진 항공기가 적절한 수리 과정을 밟지 못했다가 대형 참사를 냈던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85년 일본항공(JAL)이 운항하던 보잉747은 후방 벌크헤드(격벽)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나 520명이 숨졌다. 이 항공기는 1978년 테일스트라이크로 수리를 받았으나 설명서에 정해진 대로 정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살아서 땅을 딛지 못한 아이의 신발

이집트 시나이반도 하사나에 추락한 여객기 잔해 앞에 여아의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다.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고 발생 하루 뒤인 1일(현지시간) 찍은 것이다. 이 여객기는 지난 31일 오전 흑해 휴양지 사름엘레이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던 중 이륙 23분 뒤에 추락했다. 탑승객 224명 전원 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인 4명, 벨라루스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러시아인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IS 주장대로 미사일에 격추됐거나 기내에 폭발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집트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알렉산드르 네라드코 러시아 항공청장은 이날 사고 항공기의 잔해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항공기가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부서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일했던 피터 킬츠 CNN 항공분석가는 “테러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으며 초기

유지보수 문제에 따른 결합일 수 있고 중앙 연료탱크가 폭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활동하는 IS 이집트지부는 러시아 여객기 추락 직후 자신들이 사고기를 격추해 “220명 이상의 러시아 십자군이 모두 죽었다”며 배후를 자처했다.

기내 폭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모스크바에서 항공 연구소를 이끄는 알렉산드르 프리들란드는 방송 인터뷰에서 항공기가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낙하한 것은 화

물간 내 폭탄 폭발에 의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여객기는 사고 당시 조금씩 고도를 높여 약 1만58m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약 22초 뒤에 약 1829m 가량 추락했다. 조종사 실수는 많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배후를 수 없는 추정 원인 중 하나다.

러시아 코갈림아비아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지난 31일 시나이반도 남부 휴양지 사름엘레이크에서 이륙해 러시아로 향하던 중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추락, 탑승자 224명 전원 이 숨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6한왕조 세운 백수건달 유방

한 고조 유방(劉邦, BC 247-BC 195)은 감소성 패현 출신으로 항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한나라를 창건한 인물이다.

그의 출생에 관한 일화는 남다르다. 어느 날 생모가 마을의 늪에서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주변이 캄캄해지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다. 용이 불꽃을 튀기며 생모 몸 위에 덮드려 있었다.

다음 해 봄 그가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용모가 특이했다. 이마가 튀어나오고 콧날은 높아 얼굴이 용의 형상이었다. 왼쪽 허벅지에는 72개의 검은 점이 있었다. 젊은 날은 전형적인 백수건달이었다. 하는 일 없이 마을을 쏘다니며 술 먹고 객기를 부렸다.

여부와 혼사도 한편의 드라마다. 여공이라는 부유한 도호가 잘못을 저질러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패현으로 이사를 왔다.

흥노에 항복했다. 진희가 반란을 일으켜 직접 출병해 진압했다. 양왕 팽월, 회남왕 영포 등이 반란을 일으켜 진압하는데 애를 먹었다. 한신도 진희와 공모해 역모를 도모, 처벌했다. 회남왕과의 싸움에서 빛나자 화살에 입은 상처가 재발되어 BC 195년 장안의 장락궁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그가 패권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황제가 된 것은 탁월한 용인술(用人術) 덕분이었다. 천하통일에 기여한 3대 공신으로 소하, 장량, 한신을 들 수 있다. 소하는 동향 출신으로 평생 뜻을 같이한 동지다.

그가 전선에서 싸움을 벌일 때 후방에서 식량과 병기를 쟁긴 것은 소하의 몫이었다. 관중 지방을 잘 방어해 유방에게 제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도 소하였다. 당태종 이세민이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은 장량의 계책 덕분이었다”고 극찬한 명 참모 장량이 평생 충성을 다한 것은 유방이 보여준 인간적 매력 때문이었다. 한신과 천하

탁월한 용인술로 항우와 천하 쟁패서 승리

지방 유지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인사하기 위해 연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방과 운명적 만남이 이뤄졌다. 여공은 그 자리에서 사위로 맞아들였다.

백수건달에게 과감히 자기 집안의 운명을 베푼 것이다. 후에 사가들에게 강희의잔인(剛毅殘忍)하다는 평가를 받은 여공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다.

BC 209년 그는 패공이 되어 소하, 번쾌 등을 거느리고 거병했다. BC 206년 진의 수도 함양에 들어가 진 왕실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당시 실력자인 항우는 스스로 서조패왕이 되고 유방은 파·축·한중을 다스리는 한왕으로 임명했다. 이후 수년간에 걸쳐 항우와의 천하쟁패를 위한 싸움이 이어졌다.

팽성 전투에서는 열 배나 되는 군대를 가졌음에도 참패했다. 그러나 경포, 팽월, 한신 등이 항우를 버리고 유방 쪽으로 돌아서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BC 202년 회하의 전투에서 항우를 몰아부쳐 결국 오강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든다. 그는 한의 제위에 오르고 장안을 수도로 정했다.

황제가 된 이후 거의 매년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한왕신이 배신하고

를 나눌 것을 건의한 것도 장량이였다. 한신이 군 최고 사령관이 되었기에 항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한신은 원래 항우의 부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 군락을 건의해도 수용되지 않았다. 한신이 유방 쪽으로 돌아선 것이 천하대세를 갈라놓았다.

그는 오만불손했지만 부하의 주장을 경청했다. 진평의 건의를 받아들여 항우와 참모 범증을 이간질 시키는 계략을 채택했다. 장량이 공천하(共天下) 즉 천하를 함께 나누어 가지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신과 팽월에게 큰 영토를 줌으로써 반(反) 항우 전선을 구축하는 구상이었다.

그가 천하의 인재들을 누르고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권력의 지와 시커먼 마음일 것이다.

리종우는 저서 후흑학에서 “한신은 남의 기량이 밑을 기어가는 모욕을 참았으니 낮이 두껍기로는 유방을 능가하나 마음을 시커멓게 하는 데는 수련이 모자라 망했다”고 평한 바 있다. “인재를 잘 쓴 것이 천하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다”는 자평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초대대학교 총장)

마을주민 102명이 난민 750명 수용할 처지

獨 정부, 학교·경찰서 없는 마을 쪼뼤에 난민 할당

유럽이 난민 때문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주민이 102명밖에 되지 않는 독일의 작은 마을이 750명의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독일 니더작센 주에 있는 쪼뼤라 지역이 이번 주부터 난민들의 유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지역에는 우선 500명의 난민이 정착하고 나서 75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애초 1000명이 배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250명이 줄어들었지만 이 지역의 열악한 사회 기반시설을 고려하면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지역에는 학교도, 경찰서도, 가게도 없으며 주민은 모두 102명에 불과하다. 이 지역이 한계를 넘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독일 연방정부가 난민을 16개 주에 할당할 데 따른 것이다.

겨울이 오기 이전에 난민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독일 정부는 각 주의 인구와 경제력을 고려해 난민을 할당했고, 각 주는 거주시설 여부를 떠나 난민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건물’을 따져 정착 지역을 결정했다.

쪼뼤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해 마을이 대혼란에 빠질 것은 당연하며 더 큰 문제는 극우 세력이 준동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틀러를 존경한다”는 한 지방의회 의원은 난민 문제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환영했다. /연합뉴스

베트남 “해외 미인대회 허락말고 나가야”

당국 허가없이 참가하면 벌금 부과 ‘논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해외 미인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온라인매체 베트남에 따르면 모델 람 투이 아인은 최근 호찌민 시로부터 한국에서 열린 미인대회에 허가 없이 참가했다는 이유로 2250만 동(11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모델인 후인 투이 아인은 미국과 독일에서 개최된 미인대회에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가했다가 벌금은 낸 것은 물론 베트남에서 모델 활동이 금지됐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미인대회 참가 자격을 국내 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제한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

다. 이를 어기면 1500만~3000만 동(76만~153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베트남을 대표할 수 있는 해외 대회 참가자를 엄선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최근 5년 사이에 해외에서 각종 미인대회에 급증하자 크지 않은 벌금을 감수하면서 참가하는 젊은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 모델인 투이 아인은 “개인적으로 해외 미인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어찌됐든 참가자가 입장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레식당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